

건설업계 올 키워드 '생존'

각종 규제에 신용리스크 대두... 3기 신도시는 호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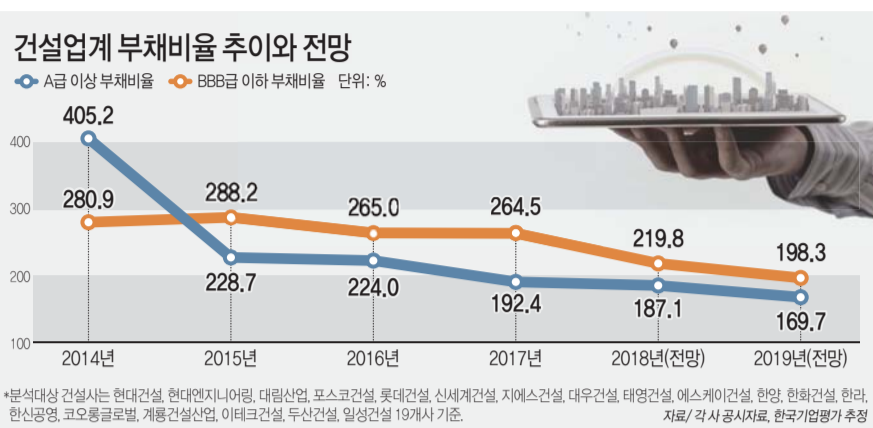
경의-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관련 인프라 협력강화 호재

대립산업·롯데건설 등 신용 상향 수주·투자 부진... 주택경기 하강

“올해 국내는 물론 해외도 시장환경이 더욱 어려워 것으로 예상된다. 난관을 이겨나가기 위해 최고 수준의 전문지식과 역량을 함양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전문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정진행 현대건설 부회장)

“올해는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관심 부족과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도입, 주택규제 강화로 건설 경기 하락세가 예상된다. 건설산업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유주현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

건설업계의 2019년 키워드는 '생존'이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규제에 따른 시장 위축, 해외 수주 감소 등 삼중고로 잠잠하던 신용·재무 리스크가 깨어날 조짐을 보여서다. 올해 수주액은 137조원(전년 대비 7.9% ↓) 가량 줄 것이라 전망이 있다.



양극화도 예상된다. 대형건설사는 올해도 재무안정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신규 사업 추진과정에서 2017년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순차입금이 6조2000억원까지 줄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경기가 꺾이면서 재무안정성이 떨어지는 곳은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있다.

10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신용평가 3사는 대립산업, 롯데건설, 한화건설의 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으로 상향했다.

한국기업평가 최한승 수석연구원은 대립산업에 대해 "우수한 주택사업 실적, 유회관계사로부터 배당유입으로 수익성과

재무안정성이 개선됐기 때문"이라며 "양호한 수익창출력과 안정적 재무구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롯데건설의 신용등급(A) 전망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했다. 2017년 9월 매출액대비 이자·세전이익(EBIT)은 8.7%로 개선됐고 상각전영업이익(EBITDA)대비 순차입금 지표도 1.3배까지 낮아졌다. 수주잔고에서 주택사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채산성을 감안할 때 양호한 영업현금창출력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화건설은 중동 플랜트의 추가 손실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되면서 '안정

적'이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 전망은 기대반 우려반이다.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계획에 따른 정책 수혜를 꼽는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019년 상반기 토목 중심의 수주 증가로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태영건설, 대우건설 등 전 건설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2019년 상반기 민자투자법 개정을 통해 민간이 모든 공공시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등 남북 인프라 협력이 강화되면서 남북경협 호재도 살아있다.

반면 지난해 실적을 끌어올린 주택경기가 하강은 부담요인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019년 건설경기 전망'에서 2019년 건설지표는 2018년에 비해 수주와 기성(공사 완료), 투자 등 전 부문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9년 건설수주액은 137조 원(2018년 대비 -7.9%), 건설투자는 238조 원(↓ -2.8%)으로 예상했다.

2019년 건설투자 역시 전년 대비 2.7%

(한국건설산업연구원)감소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18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하는 것이다. 2018~2019년 건설수주 누적 감소액도 24조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몇몇 기업은 부실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두산건설의 신용등급은 한 단계(BB+, 부정적→BB, 부정적) 낮아졌다. 낮은 영업수익성, 완공사업과 장기지연 사업에 대한 선투입자금의 회수 부진, 2018년 추진 예정이었던 창원공장 매각 등 자구계획 이행이 지연되면서 차입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 배영찬 연구원은 "금융규제 강화,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의 입주물량 지속 등으로 주택경기는 하강 국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중동 주요국의 재정수지가 개선되면서 장기간 지연됐던 투자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높아 해외 수주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진행물량 감소와 신규사업의 채산성 저하가 예상되나, 비건축부문의 수익구조가 안정화되면서 이를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증권 다이제스트

키움 ELS 고객님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2019년 1월 2일 ~ 2월 28일

키움증권 ELS·DLS 투자자 이벤트

키움증권은 공모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투자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키움증권에서 판매하는 공모 ELS와 DLS를 청약한 투자자는 신세계 5000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신청이 필수이며 1월 100명, 2월 100명이다. 이번 주 키움증권 출시 상품은 제909회 ELS와 제87회 DLS로, 1월 11일 오후 1시까지 청약할 수 있다. '제909회 ELS'는 LG생활건강 보통주와 유로스톡스50(EUROSTOXX50)지수, 홍콩항셱중국기업(HSCEI)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며 3년 만기에 6개월마다 상환 기회가 주어지는 스텝다운 유형의 상품이다. /손염지 기자

NH투자증권 23일 '100세시대 아카데미'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본사 아트홀에서 공개형 생애자산관리 교육프로그램인 '100세시대 아카데미' 1월 강좌를 연다. 100세시대연구소는 2019년 새해를 맞아 '100세시대 아카데미'에 '명사 특강' 코너를 신설, 연 2회 이상 진행할 예정이다. 1월에는 첫 번째 명사 특강으로 '트렌드 코리아 2019' 강좌를 실시한다. 2019년 소비트렌드 전망과 '10대 소비트렌드 키워드'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 멘토인 김난도 교수(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의 강의를 직접 들을 수 있다. 매월 개최하는 '100세시대 아카데미'는 강의 일자별 사전 참가신청을 통해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김문호 기자

기업간 B2B 자금관리 독보적 위치... 핀테크 첫 상장

IPO 간담회

웹케시

경리나라 등 금융관리 솔루션
16·17일 청약, 25일 상장 예정



윤관수 웹케시 대표이사

기업 간 거래(B2B) 핀테크(finance+tech) 플랫폼 기업인 '웹케시'가 이달 말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웹케시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날 수요예측을 마무리하고 16, 17일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은 이달 25일로 예정돼 있다.

1999년 설립된 웹케시는 당시 동남은행 멤버들이 주축이 돼 창업한 기업이다. 금융이 인터넷에 접목되는 초기 환경 속에서 웹케시는 성장을 거듭했다. 2010년에 들어서서 금융과 정보기술(IT)이 접목되면서 기업과 금융 간 인터넷 거래가 활발해졌다.

이러한 환경에서 웹케시는 기업 간 거래(B2B)에 초점을 두고 플랫폼 개발 판매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국

내 점유율 1위의 시장선도 기업이다. 현재 기업의 자금 관련 실무담당자는 다양한 형태의 자금·지급 관련 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비용 등의 문제로 거래하는 은행과 전용선을 통한 펀딩킹 등의 시스템 구축이 힘들다. 웹케시는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기업안에 은행을 만들어 주는 개념의 B2B 핀테크 플랫폼을 만들었다.

윤관수 웹케시 대표는 "우리의 플랫폼을 통해 개별 기업은 자금 관리에 대한 기존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적으로 개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웹케시는 전 세계 25개 국가 352개 금융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국내에서는 은행 20개, 증권 24개, 카드 14개, 보험 40개 등 주요 금융기관과 연결돼 있다. 은행과의 제휴를 통한 시스템 구축 및 보급이 웹케시의 영업활동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웹케시의 주요 상품은 ▲공공기관을 타겟으로 하는 '인하우스뱅크' ▲대기업이 주요 고객사인 브랜드 ▲중소기업을 위한 '경리나라'를 비롯해 지난해 출시한 해외기업을 위한 자금관리 소프트웨어 '브랜치G'가 있다. 기업 유형에 맞춰 차별화된 금융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먼저 인하우스뱅크는 공공기관과 초(超)대기업을 위한 금융 연동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이다. 현재 400개의 공공기관 및 기업에 적용됐다. 보급률은 21% 수준이다. 보급률은 매년 8.2%씩 늘어나고 있어 2024년이면 국내 약 2000개 기업에 모두 들어갈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경리 업무를 위한 '경리나라'는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블루오션' 사업분야다. 타깃 시장은 총 80만개 기업으로 규모는 25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1만개 기업에 경리나라를 보급했고, 올해는 2만개 이상의 기업을 가입시키는 게 목표다.

여기서 '점유율'이 아닌 '보급률'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해당 시장에서 유일한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윤관수 대표는 "현재 B2B시장에서 우리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없다"면서 "기업시장의 보수성, 기술적 진입장벽을 감안하면 독점적 지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영업이익률은 2016년 4.0%에서 2017년 5.2%, 2018년 3분기 누적기준 7.5%로 성장세다.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은 590억원, 영업이익은 46억원이다.

웹케시는 총 97만주를 공모하고, 희망 공모가는 2만4000원~2만6000원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마련될 약 232억원(하단 기준)의 자금은 해외시장 확대와 직원 복지에 사용될 예정이다. 웹케시의 대표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다.

/손염지 기자 sonumj301@

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6508가구 분양

2년새 두배 이상 늘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일반분양이 늘고 있다.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이후 대형 건설사도 시공사 선정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다.

수요자들도 안정성, 신뢰도, 시공력 등이 우수한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공급하는 지역주택조합 일반분양

은 6508가구다.

이는 지난해 4743가구보다 1765가구, 2016년 2976가구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소유주들이 공동으로 짓는 주택이다.

지난해 6월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할 때 먼저 관할 시·군·구에 사업계획서 등 증빙서류를

내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무분별한 조합 추진과 허위, 거짓, 과장광고가 어렵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지역주택조합의 안정성이 확보되고 조합 간 잡음이 사라져 사업속도가 빨라졌다"며 "지역주택조합이 일반분양에 나선다는 것은 기본적인 조합원 및 토지를 확보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 자체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꼼꼼히 확인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규성 기자 peace@

미래에셋대우 영업점 투자설명회 개최

미래에셋대우 올림픽WM, 흥재동WM, 신촌WM이 각각 영업점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올림픽WM은 10일 오후 4시부터 글로벌주식컨설팅팀 한상준 선임매니저가 강사로 나와 '2019년 전기차·수소차 시장 분석'을 주제로 강의했다. 흥재동WM은 11일 오후 3시 30분부터 WM컨설팅팀 한상준 부사장이 강사로 나와 '글로벌 경제시황 전망과 투자전략'을 주제로 강의한다. /김문호 기자